

토마토·파프리카 저온 저장시

반드시 비닐로 씌워 보관해야

농진청, 표면이 음쪽 패는 현상 등 저온에서 생기는 피해 막기 위해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어디서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주요 과채류(열매채소)는 상온보다는 저온 보관이 유리하지만 저온에서 생기는 피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비닐로 포장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저온 저장은 농산물의 호흡을 억제해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품질 관리 기술이다. 하지만 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과채류의 경우 한계 온도보다 낮은 냉장고(4도) 등에 오래 보관하면 씨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과일 표면이 음쪽 패는 현상이 발생한다. 모든 과채류는 최적의 저장 온

도가 따로 있는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의 저장 온도는 8도(°C) 이상, 참외는 5도(°C) 이상이 알맞다. 이보다 낮은 곳에서는 저온 장애(수침, 핏팅)가 발생해 상품성이 떨어진다.

농촌진흥청은 주요 과채류의 출하시기를 맞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온 장애를 막기 위해 토마토, 파프리카, 참외를 숨 쉬는 필름인 엑스에프(XF)필름과 파이(PE)필름으로 포장한 뒤 보름가량 온도를 달리해 관찰했다. 실험 결과, 토마토는 공기 조성과 적정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XF필름으로 포장해 저온(4도) 보관한 시험구(0.86)가 아무것도 처

리하지 않은 채 저온에 둔 시험구(2.02)보다 저온 장애 발생이 절반가량 적었다.

파프리카는 상온에서 유통하면 수분 손실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저온에서 일주일 이상 저장하면 저온 장애가 나타났지만, 비닐 필름(XF필름, PE필름)으로 포장한 뒤 저온 보관했을 때는 상품성이 유지됐다. 참외도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저온 보관한 것보다 비닐 필름으로 포장한 뒤 저온에 둔 시험구에서 노란 껍질과 골 부분(하얀 줄 부분)의 갈변 증상이 덜 발생해 상품화 가능 비율이 47% 증가했다.

따라서 과채류를 보관할 때는 상온보다는 냉장 보관이 알맞고, 냉장 보관도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 투명 비닐 필름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통업체에서는 과채류가 숨을 쉴 수 있는 비닐 필름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일반 가정에서는 투명 비닐 팩이나 비닐 랩으로 싼 뒤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2주 이상은 저온 장애 없이 신선함이 유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윤표 저장유통과장은 "장기간 신선도 유지가 어려운 과채류의 저온 장애 억제 기술을 발전시켜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과채류를 제공하고, 나아가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초대형 성탄트리 전주에 불 밝히다

예수병원, 점등식 열어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최근 나눔과 치유의 정원에서 전주시 최대의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소인원으로만 진행된 점등식은 이종학 이사장과 김철승 병원장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과 예수병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주차 장부터 재활센터까지 총 길이 206m의 전주 최대 규모의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과 높이 10m, 넓이 4.5m로 클래식 형태의 화려한 장식을 한 성탄트리의 환한 불빛 속에서 진행됐다.

김철승 병원장은 이날 점등식에서 "예수병원 성탄트리의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고 환하게 비추는 희망과 치유의 빛으로 코로나19로 힘든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의 위트가 되는 희망의 불빛이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전북도민과 환자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더욱 행복한 기쁨의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수병원의 초대형 성탄트리 장식은 지역민에게 희망과 축복의 성탄 메시지를 들려주며 2020년, 2021년 연말연시의 추운 겨울밤을 따스하게 밝혀 줄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선제적 '인권경영'

인권존중문화 확산

새만금개발공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인증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경영인인증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의 인권 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체계를 제3자가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공사는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등의 인권존중 및 침해 예방을 우선 고려한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인증서를 획득했다.

특히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의 지정, 관련 규정의 재정비 및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한 인권침해 요소의 지속적 점검과 인권경영 중심의 경영원칙 최우선 이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팔문 사장은 "인권경영 인증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를 위한 인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은 최근 나눔과 치유의 정원에서 전주시 최대의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중기 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전북중기청, '익산 수도산 광신프로그레스' 9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특별공급예정인 '익산 수도산 광신프로그레스'는 주식회사 광신

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복 익산시 동산동 158-12번지 외 93필지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6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청약에 신청가

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 가담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하이트진로, 진로 미니 팩소주 유흥용 출시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진로 미니 팩소주를 유흥용으로 출시하고 배달, 포장용 시장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진로 미니 팩소주는 휴대성이 강화된 160ml의 컴팩트한 사이즈의 제품으로 지난 10월 가정용으로만 출시됐었다. 하이트진로는 흡술 트렌드와 더불어 코로나 이슈로 메가트렌드가 된 배달, 포장용 시장을 고려해 유흥용제품을 출시하게 됐다.

특히, 미니 팩소주는 깨질 우려가 없어 휴대가 편리하며 종이팩 류로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또, 컴팩트한 사이즈는 한 병이 부담인 고객들에게 선호도가 높아 배달에 최적화됐다. 진로 미니 팩소주 유흥용은 식당, 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라면 이용하고 있는 도매사를 통해 바로 주문할 수 있다.

진로 미니 팩소주는 지난 10월 가정용 출시 후 한달 만에 100만편을 판매

하며 대체로 자리잡았다. 특히, 160ml의 소용량은 1인거주 증가와 부담없이 깔끔한 흡술을 즐기는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점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하이트진로(당시 진로)는 국내 주류업계 최초로 1989년 팩소주 용기를 출시하며 휴대하기 쉽고 편리한 음주 문화를 선보이는 등 주류 문화 트렌드를 선도해왔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진로 미니팩 유흥용은 코로나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음주 트렌드에 맞춘 제품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매장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배달 판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류 기업으로서 소비자와 업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진 최고의 제품으로 주류 문화를 선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하림, 수능 끝마친 수험생 대상 '사연 이벤트'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오는 11일까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한 '토닥 토닥, 수고한 너에게 선물한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능 2주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하림 자연실록 공식 SNS의 이벤트 게시글에 올릴 수 있는 본 가족, 친구, 지인에게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담은 사연을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수험생이 자신에게 남기는 메시지도 참여가 가능하다. 총 10명을 선정해 하림 선물세트를 증정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림 자연실록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turalhari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기본재산 안정 자금운용 적임자'

전북도, 신임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

전북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의 추천을 받아 유용우(57) 전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을 이사장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채권관리 및 보증사고 관리를 통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한단계 성장시킬 의지가 확고하고, 풍부한 신용보증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의 책임자로서 합리적인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내정 배경은 32년 동안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한 경험과 지난 2015년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을 역임(전주지점장 근무 2년)하면서, 전주지점의 사내 성과평가 전국 1등을 달성하는 등 개점 이래 최고 성과달성에 기여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전주지점장으로 근무한 2년 동안 도에서 주관하는 민생경제일터박의, 중소기업지원유관기관회의 등 각종 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해 전북도의 현안과 경제상황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 도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점을 적임자로 평가했다.

이번에 내정된 유용우 이사장 후보자는 '전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간이다. /유호상 기자

'창의적 인재를 찾습니다'

신협중앙회, 신입·경력직 14일부터 온라인 공개채용 일반·IT 직군은 신입, 여신지도·관리는 경력으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2021년도 신입 및 경력직원을 14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cusaramin.co.kr)을 통해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신입직원 ▲일반직군(기획 및 총무, 자금운용, 여신지도 및 관리, 경영지도, 감사감독 직무) 및 ▲IT 직군(IT개발 및 관리)과 경력직 ▲여신직군(여신지도 및 관리)으로 채용 절차는 서류, 필기,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연령, 학력,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기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로 신협중앙회 인사규정상 경력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지만 지원 가능하다.

단, IT직군의 경우 필수적으로 정보처리기사, C·JAVA·SQL·RDB(Oracle/Informix)·시스템·N/W·보안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여신직군(경력직)은 지원일 기준 금융 및 유관기관 여신업무의 3년 이상 경력을 요한다.

윤성근 신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은 "2021년 신협중앙회 인재 선발의 원칙은 금융협동조합의 힘으로 수치를 높이는 가치를 창조해 나갈 인재 확보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금융협동조합으로 함께 나아가



창의적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원 인력개발팀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욱 어렵고 위축될 채용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길 기대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협회 기관으로 회원신협 및 조합원의 이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경영지원, 감독, 감사, 홍보, 신용·공제, 전산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최고의 금융협동조합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협의 발전은 물론, 사회경제조직,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일에 대한 성취감이 높아 해마다 높은 모집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김윤상 기자

특별승진비율 30%로 확대 '결실'

농진청,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수상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 3일 온라인 중계로 진행된 '2020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총 77개 기관이 참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159건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서면 심사를 통해 예선을 통과한 20개 기관 중 본선에 진출한 12개 기관에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녹화중계)와 온라인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농진청은 채용·공직 전문성 분야의 인사혁신 우수사례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구현'이라는 사례를 발표했다.

농진청은 농업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기관 특성을 반영해 연구 성과가 우수

한 연구자에게 승진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학술성과·품종 등 5개의 주요 연구 성과 분야에 대한 특별승진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어 인사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해 올해 연구 성과 우수자 6명을 특별 승진시킨 점이 성공적인 인사혁신 사례로 평가받았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는 연구직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우수성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연구 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